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일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소 알로프트 서울 명동

주최 국회 강민정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강민정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14:30~16:30
- 장 소: 알로프트 서울 명동 호텔 발리오스 Hall(서울 중구 남대문로 56)
- 주 최: 국회 강민정 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거연수원
- 세부일정

사회: 배상률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시 간	내 용	
14:30~14:40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1.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 옥미선 (선거연수원 원장)
14:40~15:20	주제 발표	주제1 :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 : 모상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2 : 청소년 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발표자 : 송민영 학생 (광남고등학교 2학년)
		15:20~15:30 휴 식
15:30~16:20	토론	좌장 이창호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1 이종희 박사 (선거연수원 교수)
		토론2 강정훈 교사 (인덕원중학교/민주시민교육전문가)
		토론3 이흥근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토론4 김규진 대표이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토론5 박성경 학생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청소년의회 의장)
16:20~16:30	종합토론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1_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

모상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2_

청소년 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21

송민영 학생 (광남고등학교 2학년)

○ 종합토론 35

1. 이종희 박사 (선거연수원 교수) / 37
2. 강정훈 교사 (인덕원중학교/민주시민교육전문가) / 47
3. 이흥근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50
4. 김규진 대표이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 54
5. 박성경 학생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청소년의회 의장) / 59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모 상 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청소년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는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정책 사업에서의 소외를 가져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인한 **선거연령하향**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 틀 속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함.
- 이에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의 중1~고3 재학생
표집 틀	2020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약 3,000명 (최종적으로 2,816명 표집 완료)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20년 5월~8월
조사내용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참여 제약 및 활성화 요인, 정치효능감, 민주시민 역량, 선거권 연령하향, 정부기구 신뢰도, 청소년 관련 정치현안,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탐색, 정치의식 영향력 요인, 정치 관련 대화 상대,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 등
조사방법	·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 대해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 발송 · 조사에 협조해주겠다고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면접원 학교 방문 및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실태조사 2) 조사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816	100.0	성별		
			남학생	1,464	52.0
			여학생	1,352	48.0
학교급			중학교	1,400	49.7
			고등학교	1,416	50.3
경제적 수준			상	1,295	47.5
			중	1,137	41.7
			하	292	10.7
			학업 성적		
			상	729	26.8
			중	1,202	44.1
			하	794	29.1
			정치 성향		
			보수	201	9.3
			중도	1,698	78.6
			진보	262	12.1
			부모 학력		
			고졸	559	20.4
			대졸	1,481	54.2
			대학원졸	291	10.6
			잘 모르겠음	403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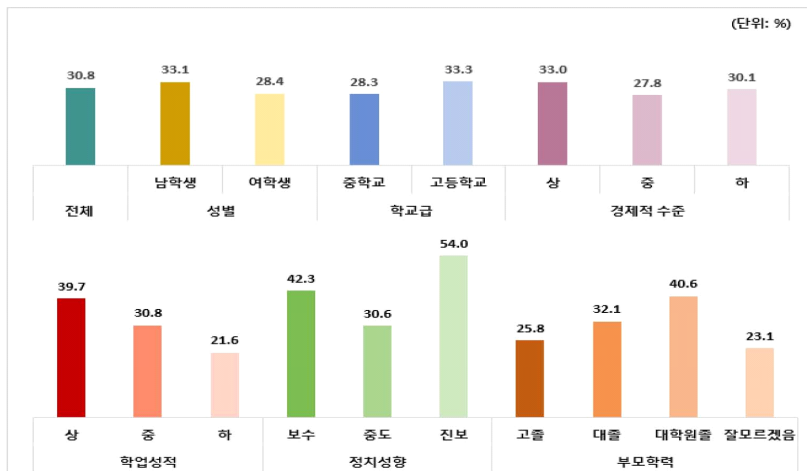
실태조사 3)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영역	조사영역
정치관심 전반(1문항)	선거관심(5문항)	정치참여저해 요인(5문항)
정치이슈 관심(8문항)	투표의향(5문항)	정치참여활성화 요인(1문항)
정치분야 관심(8문항)	선거권 연령 하향(1문항)	대통령자질(8문항)
정치관련 대화(4문항)	교육감 선거권 하향(1문항)	대통령 정책분야(8문항)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7문항)	학교 안팎 정치활동경험(6문항)	청소년 문제현안(9문항)
정치효능감(3문항)	정치활동경험 도움 여부(4문항)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6문항)
정책 신뢰도(2문항)	정치관련 토론(학교 수업)(1문항)	2021 지방보궐선거 참여(서울/부산)(1문항)
민주시민의식(4문항)	모의선거경험(학교 수업)(4문항)	보궐 선거 후보선택기준(참여자에 한함)(1문항)
정치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이용(6문항)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도(3문항)	보궐 선거기간 동안의 경험(3문항)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4문항)	정치참여활성화 교육(5문항)	투표불참이유(5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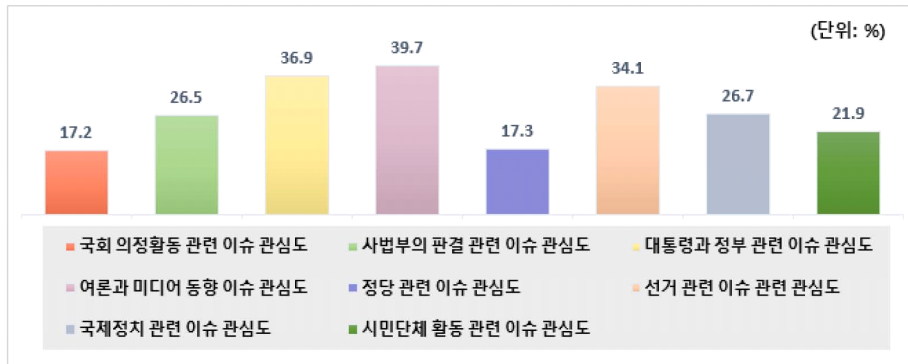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전반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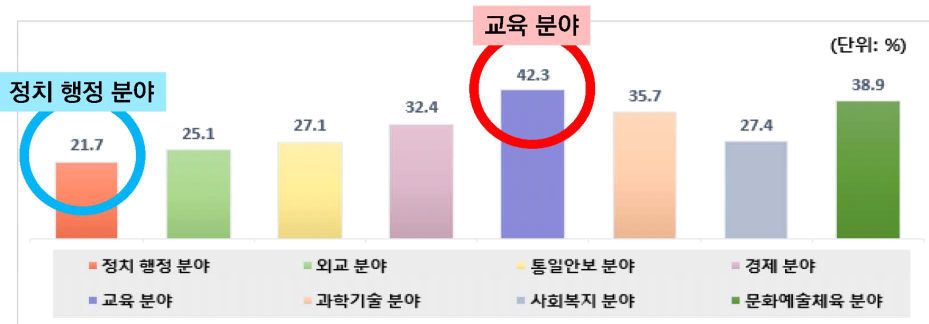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주요 이슈(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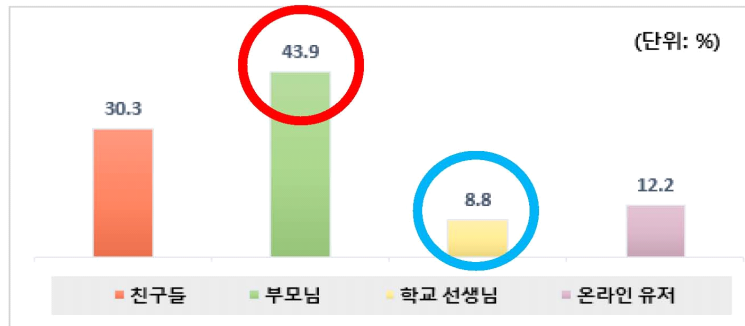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정치 분야별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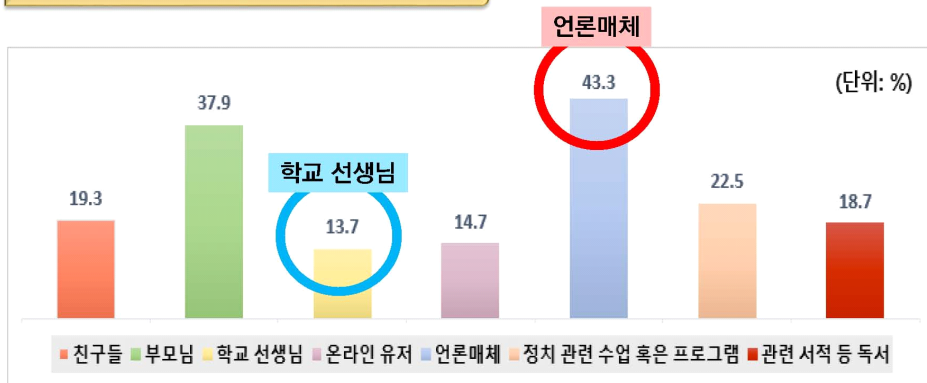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대상별 정치 관련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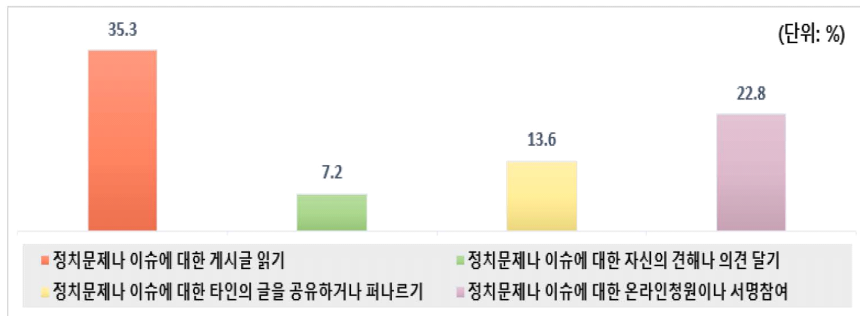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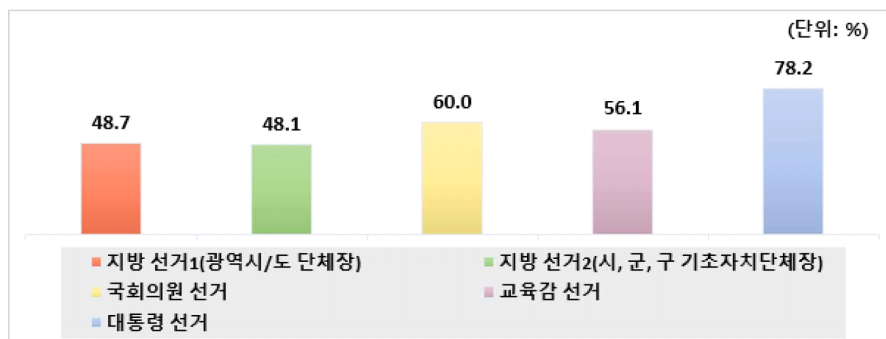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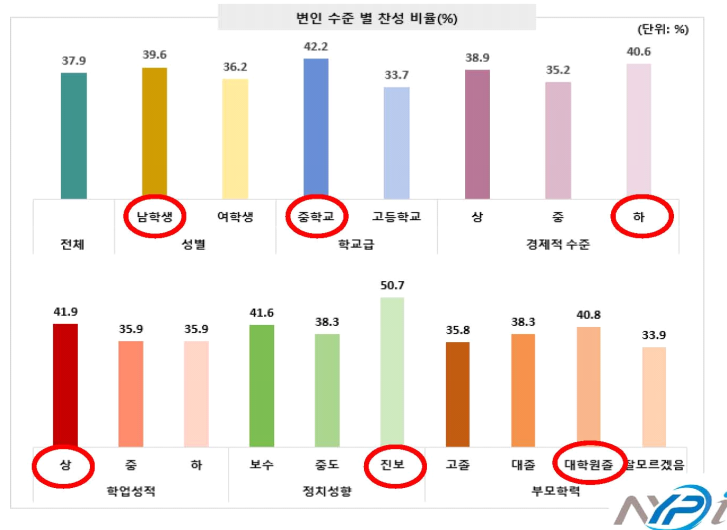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투표 의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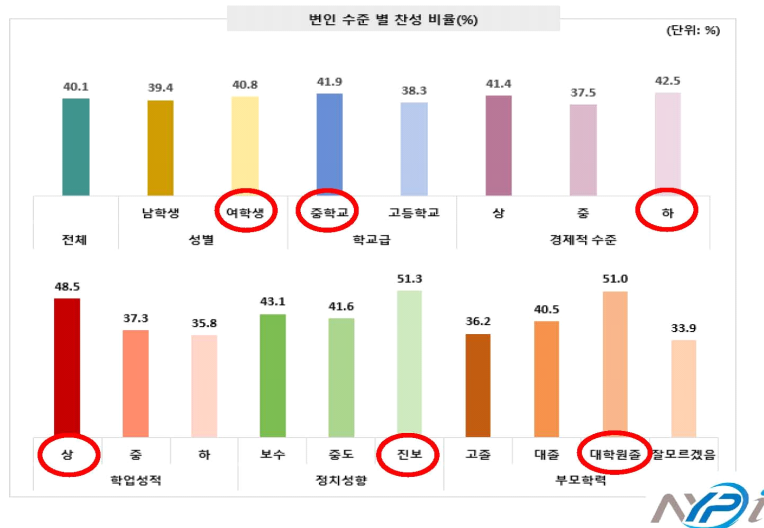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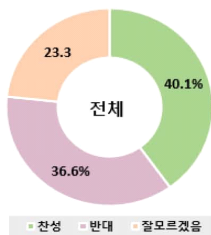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선거권 연령 하향(만 17세)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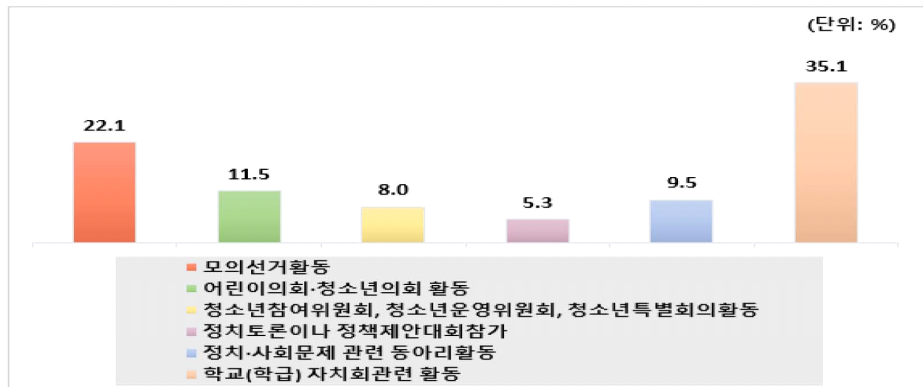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만 16세)에 대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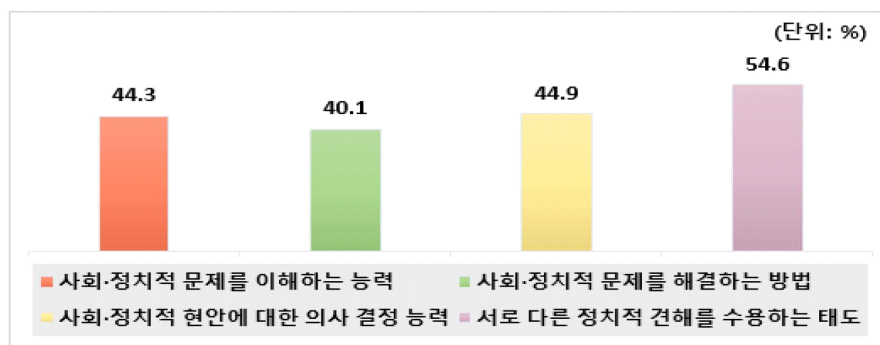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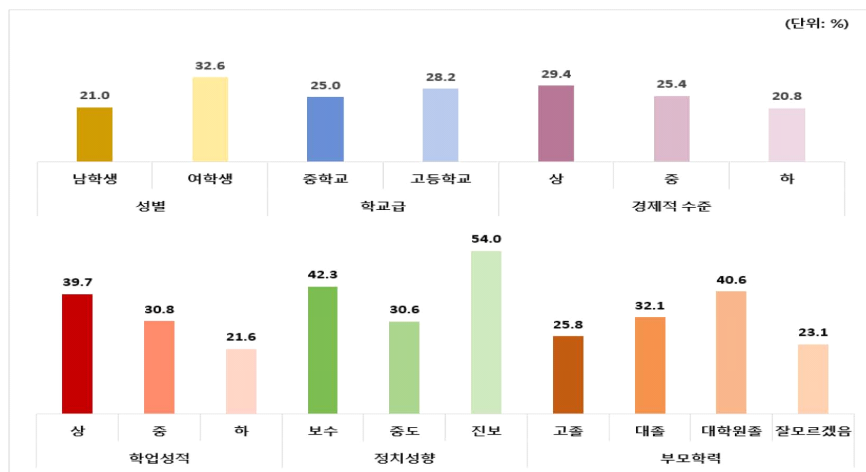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정치활동경험의 역량 강화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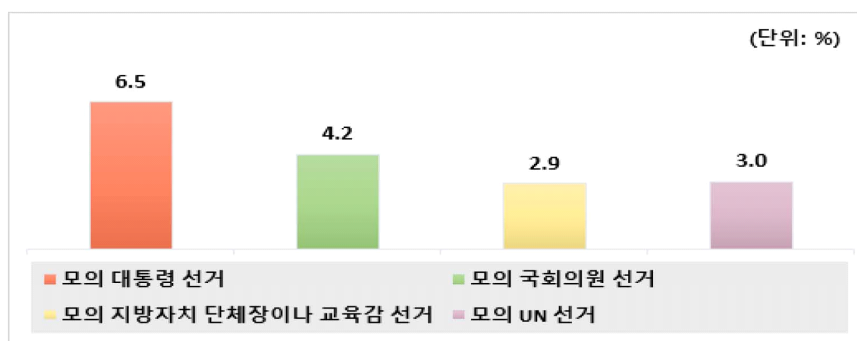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학교 수업에서 정치관련 토론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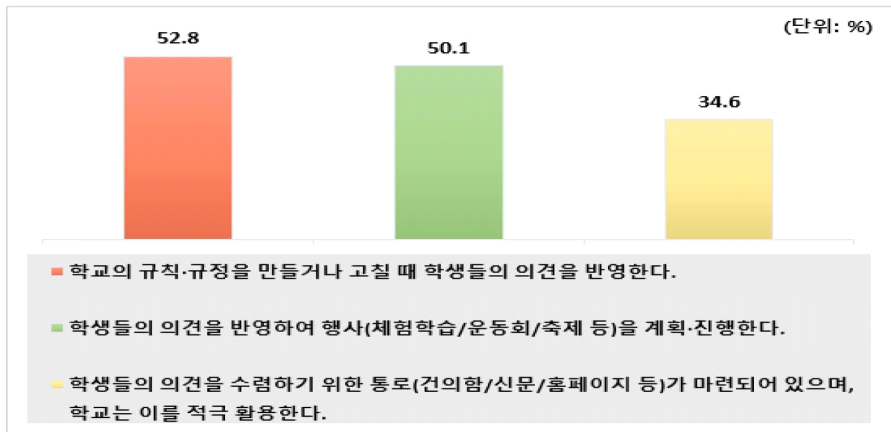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학교 수업에서 모의 선거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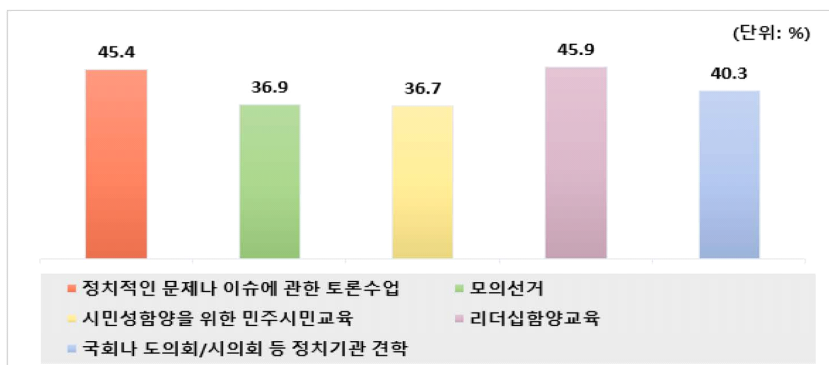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학교 내 학생의견 수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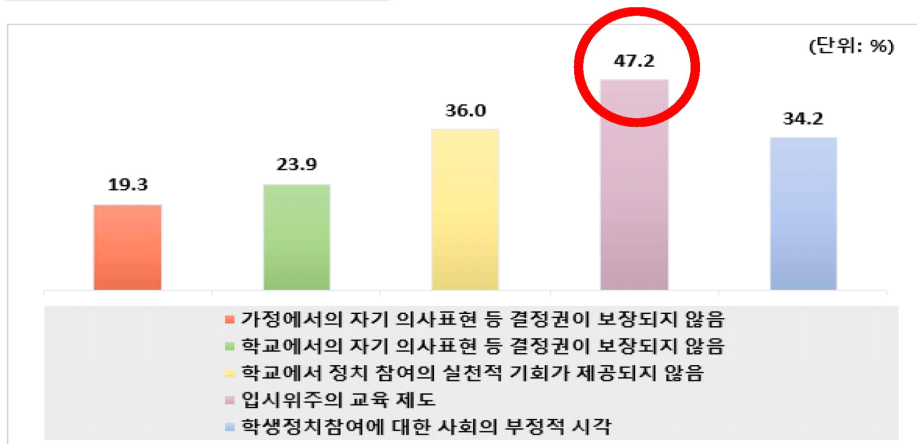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정치참여 활성화 교육의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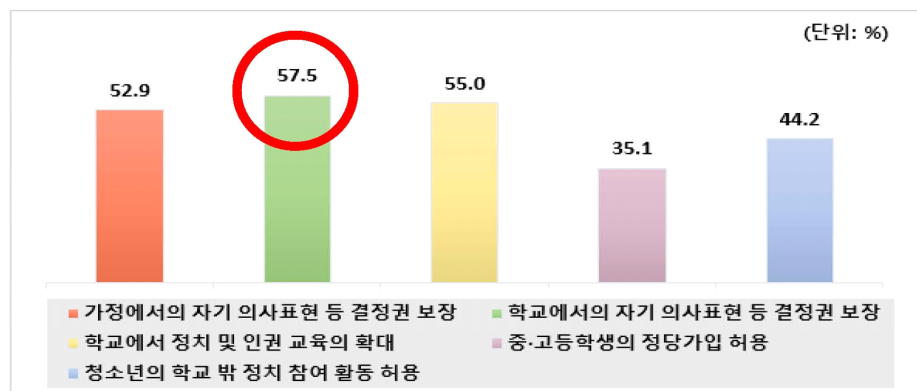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요인별 정치참여 저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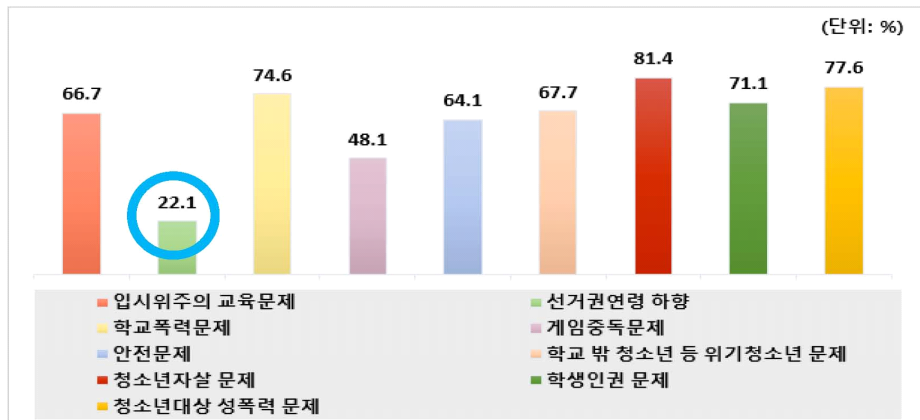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요인별 정치참여 활성화 중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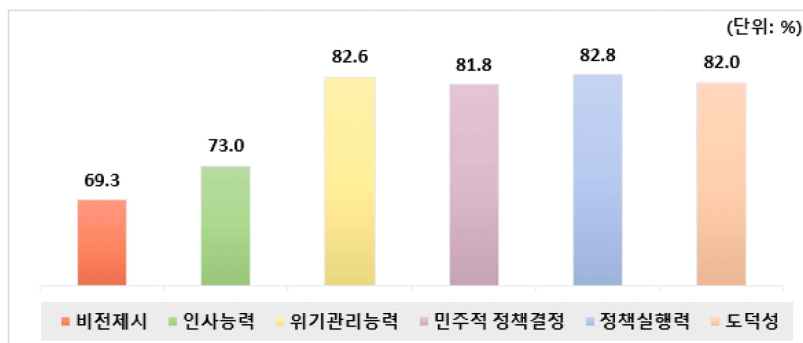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현행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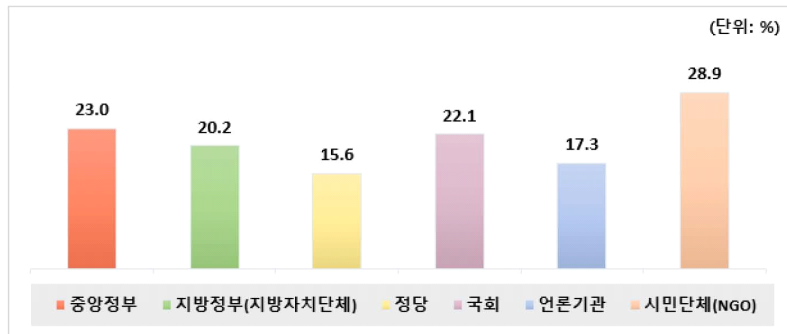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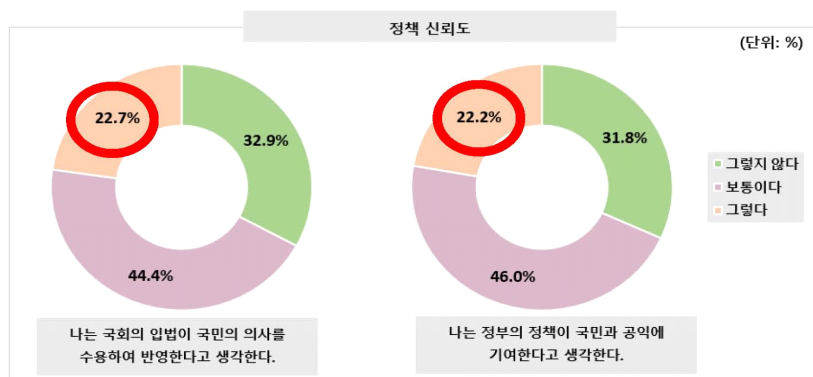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



실태조사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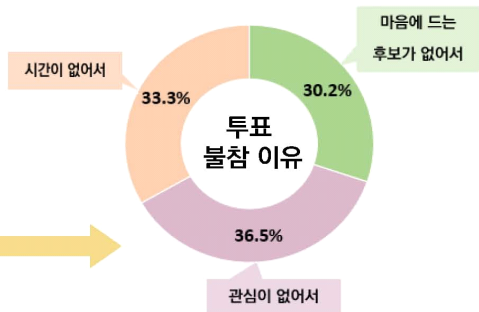
정책 신뢰도



실태조사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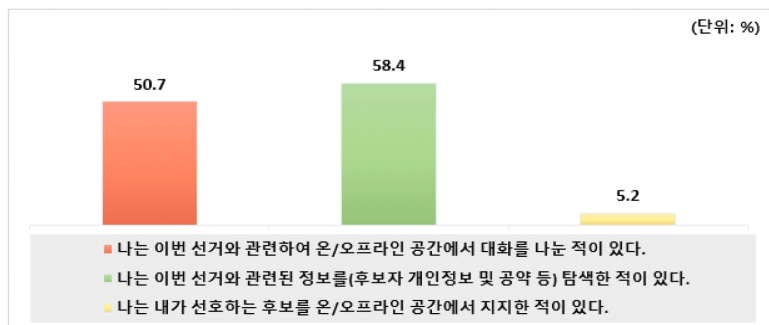
2021 지방보궐 선거(서울/부산) 참여 여부

사례수	했다	안했다	투표율
32명	12명	20명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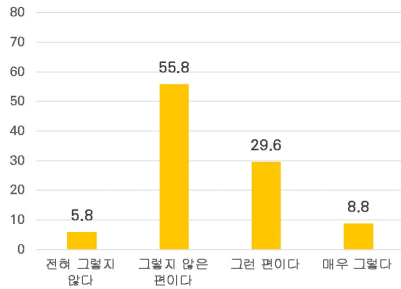


실태조사 4)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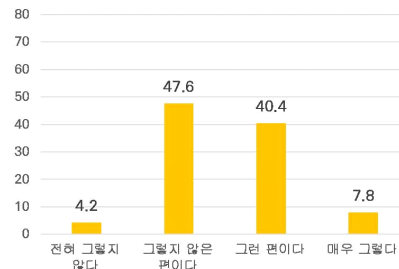
보궐 선거기간 동안 투표 관련 경험(투표참여자)



청소년 정책 인식



우리사회는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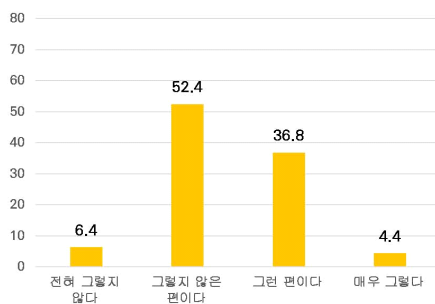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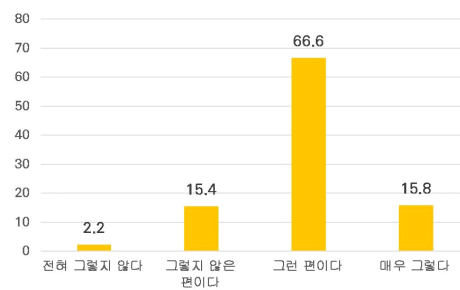
출처: 모상현(2019). 청소년참여연구사업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증진방안 연구



청소년 정책 인식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청소년이 정부책임자들과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참여
포털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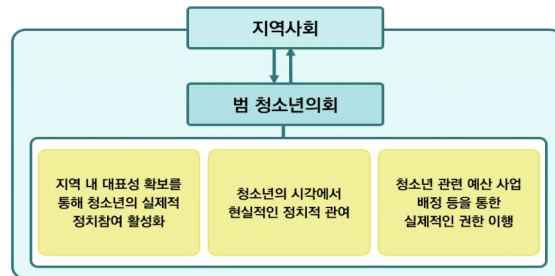
출처: 모상현(2019). 청소년참여연구사업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증진방안 연구



정책 제언

1)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통합적인 형태로 실제적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
- 청소년 관련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해 보다 다각화된 시각과 문제 해결의 현실적·구체적 접근이 가능
- 청소년 대표성 확보로 인한 의회 예산요청(참여예산제 등) 등 권한에 대한 요구의 가능성이 증대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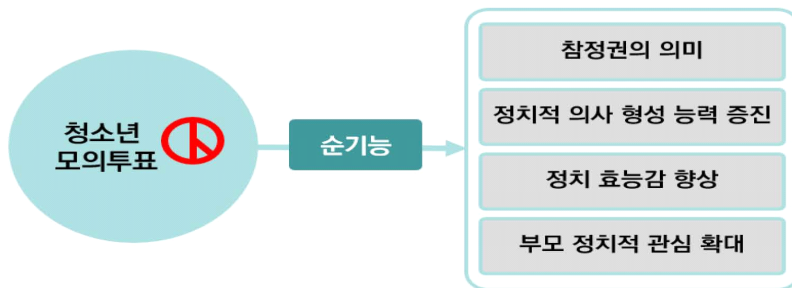
2)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모의투표 활성화)

-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모의투표 활성화 방안 마련**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0년 2월 6일 학생 대상 모의선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의 경우 키즈보팅(Kids Voting) 프로그램을 통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제공, 독일의 경우도 유니오발(Juniorwahl)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단순 투표체험 뿐만 아니라 학교정치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관련 수업과 접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비록 선관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보아야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모의투표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2)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모의투표 활성화)



청소년 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송민영 학생
광남고등학교 2학년



제 2의 유관순을 꿈꾸다

청소년 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광남고등학교 2학년

발표자: 송민영

목차

청소년 정치참여를 통한 나의 성장 이야기

01

인삿말

02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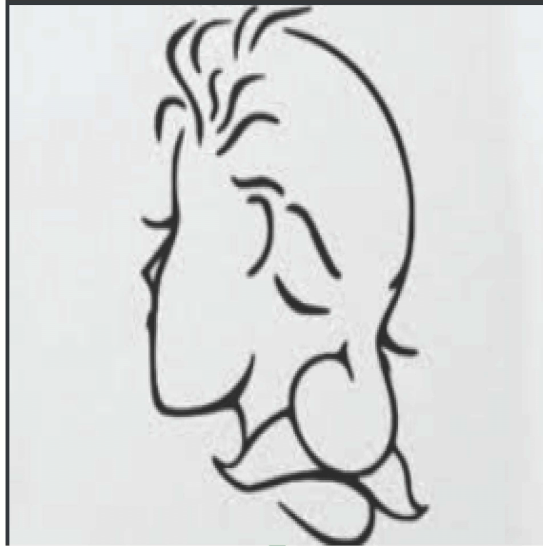
03

성장 이야기

04

청소년 반장비서

01 인삿말



어린이들이 뭐알아?



그런건 어른들이나 하
하는거야~



공부나 해!

사회적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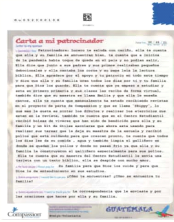
02 활동 소개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합니다!



틴 매경 기자단



아프리카 어린이 편지번역



청소년 동아리 홍보단



청소년 정책 자문단



청소년 교육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틴매경 기자가 된다] 심시일발의 관심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틴매경 기자단 (Tinmaek Journalists' Club)은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틴 매경 기자단

2018년 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15~16기
를 꾸준히 틴 매일경제 기자로서 취재 및
기사 작성



아프리카 어린이 편지번역 활동

후원자와 어린이들을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 2019년 부터 현재까지 활동중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국의 청소년 수련관 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SNS에 홍보



청소년 정책자문 지원단

우리고장 근처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비행지역을
직접 탐방 및 조사 및 안심존 정책발의



청소년 교육의회

안전환경 분과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으로
'1.5°C 다운 아이스팩과 함께'
라는 이름의 정책 발의 및 상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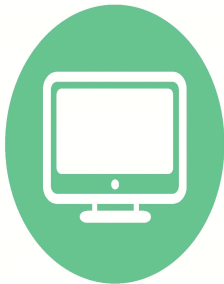


제 21기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03 성장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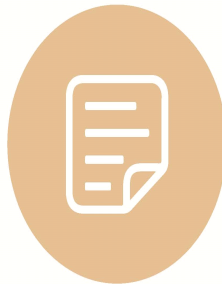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1. 뉴스 듣기

뉴스를 가법세 들으며 배경지식 마련하기



2. 신문 정독하기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신문 용어를 살피며
정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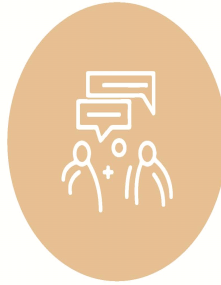
3. 사회흥미 가지기

사회에 흥미를 가지고 청소년 사회참여의
기틀 다지기



4. 학우들과의 동아리 활동

NIE를 활용한 토론수업으로
동아리에서 학우들과 소통하기



5.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마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하기



6.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서 정책 제안하기
ex)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위원회, 특별
위원회

“

청소년을 위한 비서

”

04 청소년 반장비서



소개합니다

청소년 반장비서

'구삐' 에서 영감을 받은 청소년 반장비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활동을 개별 메시지로 전달.
 그날그날의 뉴스나 시사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청소년 국민청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 수립.

청소년 반장비서



활용방안

청소년의 수요를 한번에 해결하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문자메시지로 한번에
 -모의고사 일정, 투표일, 헌혈 정려 문자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 해 주는 방식.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된 만큼 청소년들은 사회에 더 많은 관심
 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국민비서와 함께라면 청소년들의 미래
 는 더욱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예시

다음주는 전국연합 학력 평가가 있는 날
 입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청소년을 위한 시사상식을 알고 싶으시
 다면 관련 포털을 추천해 드려요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날 입
 니다. 다같이 애도를 표해보는 건 어떨까
 요?



그레타 툰베리



유관순 열사

감사합니다

송민영



참고 자료 및 문헌

모든 사진 및 출처

google - <https://www.google.com/webhp?authuser=1>

매일경제 홈페이지 - <https://www.mk.co.kr/>

아프리카 어린이 편지번역 - 컴패션 메이트 <https://www.compassion.or.kr/fo/mate/home>

개인 소장 사진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문

이종희 박사 (선거연수원 교수)

강정훈 교사 (인덕원중학교/민주시민교육전문가)

이홍근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규진 대표이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박성경 학생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청소년의회 의장)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문

이종희 박사 (선거연수원 교수)

본 자료는 이종희(2021)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 유럽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가 바탕이 되었음을 밝힌다.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 토론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희

지역별 세계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

지역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유럽	4.2%	24.1%	39.9%
미주	3.8%	24.1%	36.6%
아시아	1.9%	16.0%	29.2%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1.8%	16.1%	29.9%
중동 및 북아프리카	1.1%	16.4%	29.2%
오세아니아	0.3%	13.3%	23.4%
계	2.2%	18.3%	31.4%

I. 서론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는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정치참여에 있어 특정 연령의 과다 대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 국회 청년의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
 - 18세 선거권연령 도입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었다는 점
 - 정당가입 가능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
 -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청소년 정치참여의 원인에 속함
-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세계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

구분	단원 및 하원	상원	세계 모든 의회
30세 미만	2.6%	3%	0.5%
40세 미만	17.5%	19.8%	6.7%
45세 미만	30.2%	33.4%	15.1%

세계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 상위권 국가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노르웨이	13.6%	이탈리아	42.7%	이탈리아	59.5%
덴마크	9.5%	노르웨이	34.3%	네덜란드	55.3%
스웨덴	9.4%	코스타리카	33.3%	벨기에	54.0%
칠레	8.3%	네덜란드	33.3%	슬로바키아	52.0%
오스트리아	7.6%	콜롬비아	32.7%	라트비아	51.0%
콜롬비아	7.2%	스웨덴	31.4%	덴마크	49.7%
이탈리아	6.8%	덴마크	30.7%	콜롬비아	46.6%
프랑스	5.5%	슬로바키아	29.0%	스웨덴	46.0%
슬로바키아	5.4%	핀란드	29.0%	코스타리카	45.6%

세계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 하위권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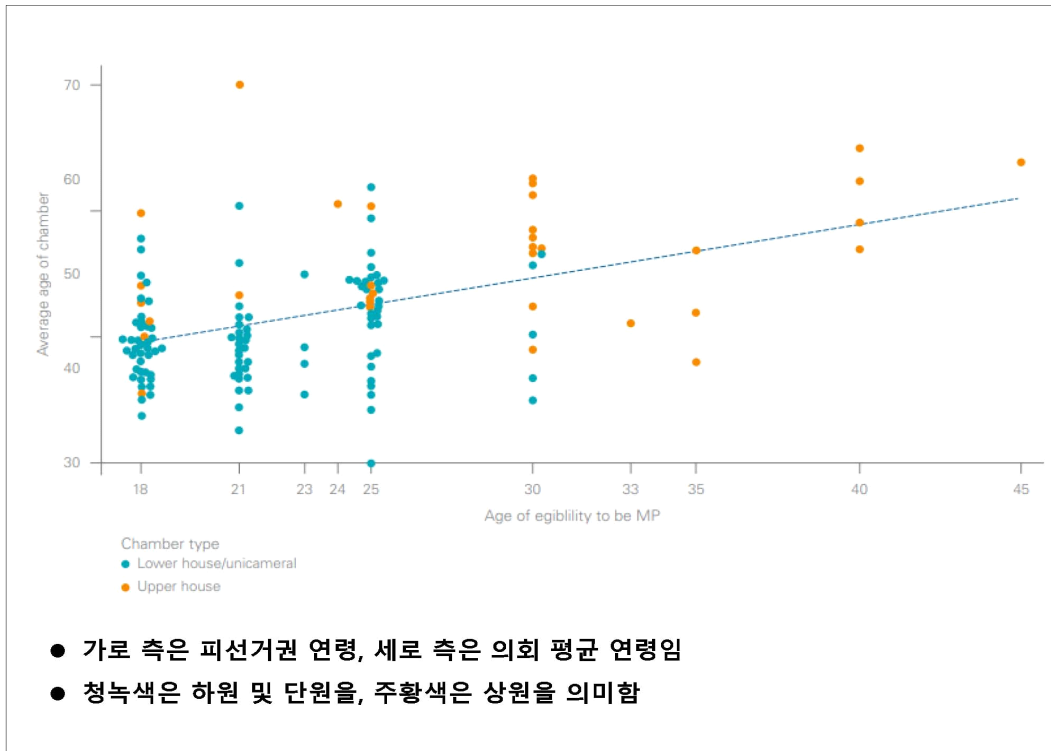
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리투아니아	2.8%	헝가리	18.0%	이스라엘	31.6%
체코	2.5%	슬로베니아	17.7%	터키	28.6%
네덜란드	2%	이스라엘	17.5%	리투아니아	28.3%
뉴질랜드	1.6%	터키	14.8%	룩셈부르크	28.3%
터키	1.3%	호주	13.9%	호주	25.8%
헝가리	1.0%	그리스	12.3%	그리스	24.6%
그리스	0.6%	독일	11.5%	독일	23.2%
대한민국	0.6%	미국	11.5%	일본	22.1%
미국	0.4%	일본	8.3%	미국	20.7%
독일	0.4%	대한민국	3.6%	대한민국	7.6%

II.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피선거권 연령

-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과 함께 정치참여의 기본적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제임
-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일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피선거권 연령	국가
18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21세	라트비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체코, 칠레, 폴란드
25세	그리스, 대한민국 ,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이탈리아, 일본



II.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정당 가입 연령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청소년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를 일찍 시작함
- 세계적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선거권 연령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음
- 영국의 보수당, 일본의 자민당, 호주의 노동당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음
-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정당이 결정함
- 정당 가입 연령을 입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치 않음
- 우리나라는 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이 동일하게 18세로 법률이 규정함

선거권 연령	국가
18세	뉴질랜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16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 국민당 18세, 노동당 15세

독일 -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영국 - 보수당 제한無, 노동당 15세

이탈리아 - 국민연맹당 14세

일본 - 자민당 제한無, 민진당 18세, 공명당 18세

캐나다 - 자유당 14세, 보수개혁연합 16세

프랑스 - 사회당 15세

호주 - 자유당 18세, 노동당 제한無

오스트리아 - 사민당 1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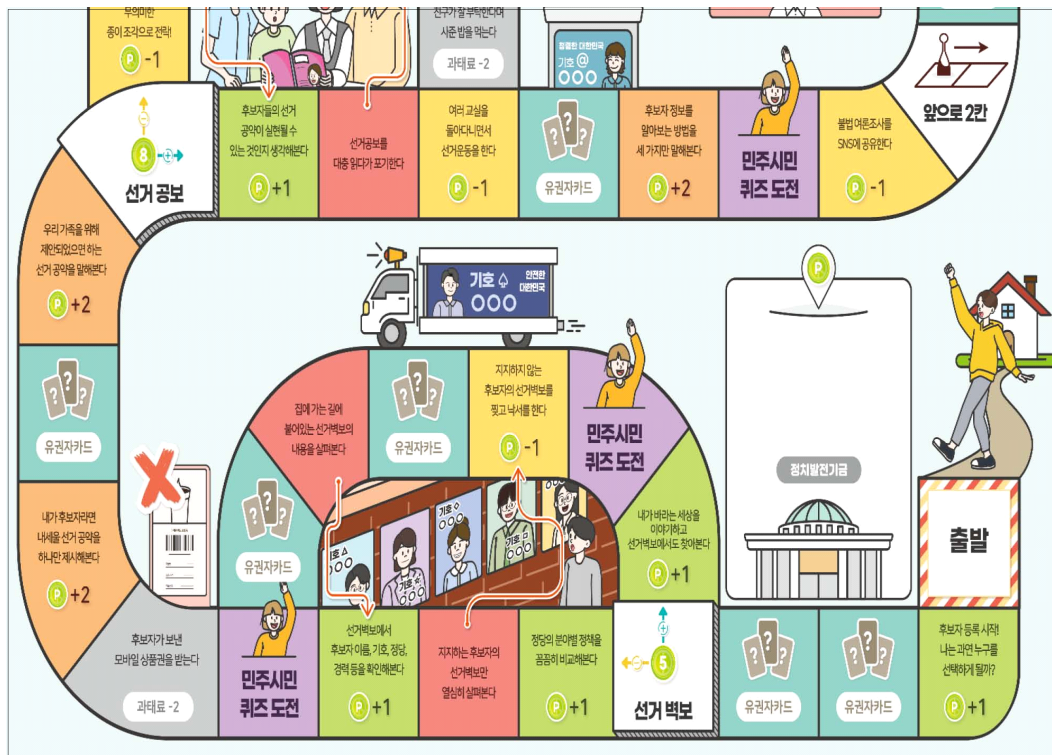
Ⅱ.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민주시민교육

- 1997년부터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수의 법안 발의되었으나 입법은 답보 상태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점점 확산
- 상위 법률 부재, 제도화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체계성 부족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기본 원칙 각각 상이
- 광역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지역별로 큰 편차
 -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불균형
 - 조례 제정 여부, 재정 조달 여건 등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 지자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운영방식의 다른 형태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체계화 필요
- 부처 및 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각 분야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리는 양질의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필요

예: 보드게임 “게임하GO 투표하GO”





Ⅲ.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 정당 내 청소년 조직 활성화

- 청년의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당내 청소년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청소년들의 의견도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인 인재 육성코스를 통해 정치적 역량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핀란드 사례

- 핀란드 원내정당은 모두 청년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 만 13세에서 30세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청년조직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는 청소년들의 의제들이 총선 공약에 포함

Ⅲ.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 지역 사회를 통한 정치사회화

-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화 과정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끼침
-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현실 정치 참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핀란드의 어린이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참고해볼 수 있음

- 어린이의회는 학생들이 선출한 학급대표들로 학교학생회가 구성되고,
각 학교 대표 2명이 지자체 어린이의회의 의원이 됨
- 청소년위원회는 종합학교 7-9학년 학생들과 일반고 및 직업고 학교
대표들로 구성되며, 시의 청소년 정책 심의, 의견 개진 등의 직무를 수행함
- 청소년의회는 199명의 청소년 의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에서 만 15-16세의
청소년들이 선발되고, 이들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됨
그 예로) 전체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대정부 질문,
총리에 대한 질문 시간 (공영방송 및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Ⅲ.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

● 학교의 정치 참여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 등

- 독일, 스웨덴, 캐나다에서는 모의선거가 대표적인 학생 대상 정치참여 교육임
- 청소년 모의선거는 정치에 관심을 고양시키고, 정치 분야 교육에 큰 효과가 나타남
-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는 1999년 부터 시작하여, 7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약 1개월 간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관리



제21대 국회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관련 주요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 제안자	주요내용
2100399 - 백혜련의원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2100400 - 백혜련의원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하향
2100828 - 용혜인의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100930 - 김미애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101391 - 송옥주의의원	예비유권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2101392 - 송옥주의의원	정당 정책연구소의 예비유권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01557 - 송옥주의의원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삭제
2103254 - 이해식의의원	모의선거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03272 - 이은주의의원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삭제
2105370 - 강민정의의원	모의선거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05651 - 김영배의원	모의선거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07332 - 황보승희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
2110557 - 강민정의의원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삭제
2110559 - 강민정의의원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2110560 - 강민정의의원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및 (사전)투표·개표참관 연령 하향

IV. 결론

- 2021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하향
 - 청년추천보조금제도 신설
 -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 조건 완화
 -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선거 허용
- 제도적인 개선방안의 모색과 지역 사회를 통한 정치사회화 필요
 - 어린이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학교의 정치 참여 교육의 활성화 필요
 -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강정훈 교사 (인덕원중학교/민주시민교육전문가)

1. 학교에서 정치참여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학교측 "학생들이 트럼프 풍자한 수행평가작품"

(양주=뉴스1) 이상훈 기자 | 2018-12-03 14:49 송고



표 1 2018년 신문 기사

2018년 12월 양주시의 한 고교를 소재로 한 이 기사로 인해서 다음날 학교 앞에는 보수단체들이 교문을 막아선채 “빨갱이 교육하는 학교”라며 학교 관계자들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와 수업 교사에게 진술서를 받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학교의 미술 교과 시간에 사회적 이슈를 골라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 모둠이 그해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때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기 위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이용한 가면을 만들어 얼굴에 쓰고,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손을 맞잡는 모습을 표현한 것

이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버리기가 아까워 교실 철판 위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올려놓고, 남과 북의 화해를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문책을 받았으며, 학생들은 아침에 보수단체들의 비난에 시달렸다.

2. 위 사건이 주는 학교의 교훈

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 정치적 중립은 이론일 뿐이다.
 - 정치적 중립은 상대적인 것이고, 30명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 언론은 다양하고 누군가에겐 비난 기사가 쓰여진다.
 - 남북 화해를 강조하는 수업도 비판받는 우리 사회의 단면
-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다.
 -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은 정치 이야기, 선거 이야기를 안하는 방법 뿐이다.

나. 학생들이 정치참여는 교사들의 문제다.

- 학생의 정치참여는 교사들의 책임
 -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우리 언론이 가만 두지 않는다.
 - 결국은 교사에게 묻는 책임 소재

다. 상처는 학교의 몫이다.

- 교육청의 태도
- 학부모의 태도
- 시민단체의 시위
 - 결국 학교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처

문제) 남북 화해 수업이 문제인가? 교실에 남북 화해를 바라는 태극기와 인공기 게양이 문제인가?

3. 소셜미디어 시대에도 법은 아직도 옛날!

가. 지금 청소년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 ☹️ 재미가 없으니까

-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는 한계

-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역사와 사회
- 결국 청소년들은 필터버블의 확증편향 속에서 살아갈 위험을 초래

나.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의 의미

- 교사들이 사실을 왜곡한다면
 - ☞ 청소년들은 검색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 교사들이 한쪽에 과도하게 편향되면
 - ☞ 아마도 그 교사는 인터넷에 도배되지 않을까?
-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4. 결국은 교육이다.

가. 가르치지 않으면 확증편향에 빠진다.

- 어린 아이에게 아무런 교육 없이 칼을 쥐어준다면?
- 지금 청소년은 미디어로 정치를 배운다.
- 그러나 미디어의 필터버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 재미와 정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나. 교육이 해답이다.

- 요즘 교육은 강의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교육
 - 교사가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 생각하고, 토론을 중재하는 교육
- 교육은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다.
- 미디어의 영향력을 줄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활동
- 후보의 정책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활동
-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다. 미디어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미디어의 본질을 알아야 정치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 미디어가 정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라. 정치와 학교가 가까워져야 한다.

- 학교 안 학생들이 정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주의 정착이 필요
- 정치인들이 함께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함.

종합토론 3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기도교육청 학생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

이홍근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 경기도교육청 학생 참정권교육의 개념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 선거, 투표 등 참정권교육이 반영됨(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이를 계기로 “투표 과정의 기능적 측면이나 선거결과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참정권교육”이 필요함(경기도교육감)
- 따라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선거교육을 넘어서서 참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의 주권자로서 필요한 사회참여, 정치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필요함
- 즉, 학생 참정권교육은 학교 안과 밖의 일상에서 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여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임

2. 학생 참정권교육 정책 추진 현황

가. 학생 참정권교육 자료 개발·보급

- 초·중·고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1.0」
 -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한 선거-자치-참여 활동 자료
- 초·중·고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2.0」
 - 교과와 연계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교육감 선거 수업 자료

나. 학생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새내기유권자교육(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선거교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와 선거교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다. 선거교육 담당 교사 연수

-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사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민주주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

라. 만 18세 학생의 정치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조례 제7208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9조의2(선거권 등) ①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정비
 - 학생의 정당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삭제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예비 유권자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마.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반 구축(27개의회,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교육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 참여 시스템 마련
 - 교육지원청 혁신교육포럼, 정책 발표회, 교육장 정담회 등의 참여 활동
 -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소년대표와 교육정책 제안 발표 및 토론회
-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정책 참여 활동
 - 경기도교육청 자체평가 학생 참여단, 학교민주주의지수 조사 학생 모니터링단
 -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주간 행사, 독도바로 알리기 캠페인 등

바. 학교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 활성화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학생 위원 포함 구성
- 학생자치회와 학교장 정담회 실시, 학생 의견 반영 결과 홍보 강화

사. 선거연수원 선거교육 콘텐츠 안내

- 양대선거 대비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자료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교재, 리플릿, 동영상 3편)
 - 교원에게 필요한 선거교육 가이드(교재)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의 어려움

가. 사회적 합의의 부재

- 선거 교육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미흡
- 현실 사회와 정치에서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한 의도적 거리두기
- 이슈를 논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교육환경

나. 정보 전달 중심의 선거교육

- 선거연수원의 선거교육은 공직선거법 준수, 선거 관련 정보 전달 중심
- 강의식 위주의 수업과 최소한의 개입

다.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정치참여를 특정 교과, 특정 교사의 영역으로 한정
- 관련 내용이 미흡한 공통과목 「통합사회」, 선택과목 「정치와 법」

라. 제한된 학생자치활동

- 행사 중심,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반복
- 학교가 허용하는 범위, 구성원의 자기검열, 학생의 참여 의식 부재

4. 청소년 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가.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의 의미 확장

- 선거권 행사, 정당 활동, 시민단체 활동
-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

나.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보호

- 교육,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적인 해석’과 제도적 보호
- 청소년의 정치교육,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지지

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육적인’ 수업이 가능한 환경

- 학생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슈화되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므로 수업을 통해 자기의 견해를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연계 되어야 함
- 이슈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견해와 학생-교원 서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수업 환경
- 선거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분석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제안함

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 지원

-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판단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수용하고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 교육

마.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효능감, 성공의 경험

-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치활동의 효능감 경험
- 학생회만이 아닌 모든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수성 활성화

바. 청소년 정치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기회 제공
-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시민단체, 청소년 전문기관 등과 연계
 - 모의선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사회참여 대회, 정당의 청소년 정치 캠프 등

종합토론 4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정치 참여 방안: 금천구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

김규진 대표이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는 ‘미래세대가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주도의 사회혁신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인 ‘꿈지락(知樂)’은 꿈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우리 법인의 모태가 된 교육·자치·진로 분야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청년 시민으로서 협력할 때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망 조성·창업창직·지역활성화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책사업의 수행을 포괄합니다.

꿈지락네트워크의 첫 출발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집단지성에 관하여 배웠고, 과연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갈 시민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무엇이든 알 수 있었고 언제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 참여 활성화와 집단지성을 말하며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이 만들어 낼 다음 시대를 낙관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권한인지, 그 권한에는 무엇이 함께 따르는지 세밀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래의 시민들이 모여 가장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토익 990점과 공무원이 꿈인 아이들’이라는 내용의 작은 공론장을 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생인 우리가 청소년을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과 다음 사회의 시민 동료로서 점차로 동등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적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우리의 활동이 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꿈지락네트워크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사회에 속해있으면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삭제된 시민’들이 재조명되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수많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모여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시작부터 함께 활동했던 청소년들은 어느덧 청년, 오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치며 지역 안에서 다양한 동료로 만나는 미래세대 세계관“Youth-opia”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년의회는 “우리는 왜 시민일까?”라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으로부터 만들어진 체험형 교육체계입니다. 청소년은 모의투표를 통하여 참정권의 의미를 자각하고 시민 동료와 함께 지역 안에서 공감하는 현안을 토론하며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을 제고합니다. 청소년의원이 지역 청소년과 정당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은 이들에게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도시는 균질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조율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타인과 논쟁하고, 의견을 직접 실행해보면서 자신의 결정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논의할 때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자가 하나의 삶, 자신의 경험하는 하나의 우주로서 존재합니다. 청소년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청소년기의 참여 경험은 청년기로 이어집니다. 청소년이 활동을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면,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한 이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의 학습 구조 안에서 청년은 내일의 시민을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에 초대하는 매개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실무적 지지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서포터즈는 청소년의회 운영 전반에 참여하면서 청소년-후기청소년이 지역이라는 소속감 안에서 동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삶을 지지하고, 다시 청년이 이들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서포터즈’(supporter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청소년 활동을 매개로 지역에 소속감이나 연결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함께 향후 진로와 지역 활동의 비계(scaffolding) 설정의 역할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치구 단위 참여기구를 운영하는 중간지원팀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 청년을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졸업 후, 각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은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과의 연계와 따로 떼어둘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회 운영 주체가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 외에도, 학생 주체였던 지역 청년과 함께 교사와 학교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 참여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연계할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체험형 교육체계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명은 ‘교복입은시민’이었지만 학교밖 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시기의 존재 상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가장 젊은시민’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활동은 무엇보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시민의 적절한 권한 발휘의 장인 선거를 통하여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진로 활동을 넘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사회참여 활동의 경험입니다.

이제는 청소년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기보다 이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 교과과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청소년의 참여 의지는 이미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안에서 청소년의 시간표에는 새로운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뿐입니다. 지난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천구 청소년들은 ‘6.13 금천구 청소년모의선거’를 자체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 투표 권한은 없었던 그 때, 90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이 투표 참여를 통하여 정치 참여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지호씨는 청년 서포터즈를 거쳐 현재 청소년의회를 담당하는 주체로 우리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6대 금천구청소년의회는 거듭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11월이 되어서야 개원을 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 19를 이기고 청소년자치의 꽃을 피우다’였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원들은 이번 개원행사에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을 ‘청소년 멘토 의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가치 중심적인 목적으로 호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입니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 전국 참여기구 최초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습니다. 청소년이 대표를 선출하면서 사람보다 공약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소년의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참여 절차를 개관할 수 있는 민주시민 기본 소양교육을 수료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직되고 청소년의 주요 의제를 반영한 분과를 운영하며 공동의 의제를 발굴합니다. 이러한 의제는 각자의 문제의식을 토론을 통하여 공유하는 과정에서 도출됩니다. 의제는 지역의 상황, 청소년이 느끼는 영향과 맞물려 해결책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해결책 중 청소년 일반의 공익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정책으로 구성합니다. 각 분과는 정책을 갖고 총회를 열어 정당을 구성합니다. 각 정당은 정책을 공약으로 삼고, 각 정당의 비전과 브랜드를 구축하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총선거에서 지역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각 정당에 투표합니다. 총 20석의 금천구청소년의회는 각 정당의 투표율에 연동하여 사전에 명부 제출된 비례대표를 배치하여 구성됩니다.

2021년도 제6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정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관련 실천을 도모하는 ‘지구를구한당’이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권리는우리담당’과 진로와 공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미래를꿈꾸당’이 다음으로 표를 얻었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우리는다를게없당’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 활동이 매우 어려웠지만, 청소년의 관심사는 범세계적 문제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 주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원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심의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금천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예산-교육·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직접 심의합니다. 무엇이 지역 청소년에게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지를 논쟁하면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는 비록 옳은 이유이더라도 더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승복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청소년의회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제안이라면 다른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강직함,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민주적 절차에 관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조례 제정입니다. 청소년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일은 명문화된 법과 보이지 않는 규범 안에서 공존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제각기 살아가는 개별적인 주체들이 시민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청소년의원의 활동은 규칙이 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공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입니다. 청소년의원의 의정활동은 소규모 과업을 팀워크를 기반으로 실천하며 이루어집니다. 지역 청소년의 대표로서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개수가 곧 지역 변화의 정도는 아닙니다. 앞서 심의의 과정처럼, 사회적 의사결정이란 수많은 사람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므로 가치에 따른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다원주의이며 많은 사람의 의견을 투표를 통하여 반영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무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책제안의 통로로서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체험형 교육체계의 부분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단위로 움직였던 청소년이 지역이라는 도전과 실행의 장을 함께 구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이 다른 학교의 교복 규정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학생회와 연계하여 학교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천·동작·관악의 청소년이 모여 만든 ‘금동관클럽’도 코로나 19 이전까지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청소년의회의 주요 업무입니다. 매년 청소년 연합 축제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축제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이라는 관계는 수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목적으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중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이 동료들 만들고 의견이 부딪치면서 합의점을 찾고 협력하는 전체 과정에 늘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민이 전임적 참여(full-participation)를 위하여 학습과 실행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수행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던 범세계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정치 참여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들이 제안되는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의회 및 학교 경험을 토대로 한 청소년 정치참여 제약, 활성화 방안 -

박성경 학생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청소년의회 의장)

2019년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2021년 현재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면서,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이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비해 청소년의 일상 속에 ‘정치’가 스며드는 속도는 느린 듯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지역사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 참여기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학교 교육’, ‘학교 활동’, ‘청소년 기관’, ‘청소년 참여’ 총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1. 학교 교육 중심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민주시민교육이 대두되고, 정치참여가 중요한 역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정치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실행 횟수는 증가했는지 모르나, 다수의 청소년은 이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정치 교육은 소위 ‘특강’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특강은 쉬어 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 집중해서 듣지 않아 그 효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인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의 필요성을 깊게 느끼는 필수 교과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거나,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교육 방식에서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바꾸어 학생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등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속에서는 시간과 교육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참여와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여건이 갖춰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방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으나, 교과 교육보다는 후술할 학교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학교 활동 중심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입학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 순간까지 수많은 선거를 거칩니다. 각 학반의 반장 선거, 동아리의 부장 선거, 학교의 회장 선거까지 족히 20번이 넘는 선거를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민주주의의 정치참여와 그 작동 원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교내 선거의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효용성 체감이 이후 정치참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학교 측에서 아직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충분히 표방하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거가 형식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위 3개의 문제점에 대해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의 선거가 민주주의 원리를 충분히 표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전교회장 출마에 성적 제한이 있어 참정권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가 매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 적절성 있는 시기와 방법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학생이 당선증을 받고 학생의 대표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학생의 대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탓에 출마자와 유권자의 입장보다 ‘학교’의 입장이 중요한 선거가 되어,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학교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입각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선거에 대한 규정을 세우고, 당선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 학생의 대표로서 행동합니다. 학교 선거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때 느꼈던 책임감과 고민이 이후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선거가 형식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생회장과 같이 큰 선거는 다르지만, 반장 선거의 경우 서로가 공약을 정해 대립하고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정자를 뽑기 위한 형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는 반장이라는 지위가 실제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입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가치가 없이 형식상으로만 치러지는 선거는, 미래에도 선거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도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청소년이,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 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당선자에게 부여하여, 다양한 선거에서 일찍이 효능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가 이같이 변했을 때 사회변화 및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학교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장으로서 한 학급을 이끌어나간 경험을 한 후, 전교 회장이 되어 한 학교 속에서 의무와 권한을 느껴보고, 이후에 의원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 체험 및 자아실현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학교의 선거는 학교장의 재량권 아래 있으며, 이 때문에 각 학교의 선거가 다르고, 같은 학교라도 관리자가 바뀌면 선거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학교 활동에서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일부 학교만이 이를 차용한다면, 진학한 학교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이 달라지는 비효율적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내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교내 선거와 관련된 매뉴얼 제작 및 연수,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교내에서 민주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 기관 중심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학교에서 위와 같이 노력을 한다면,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정치참여가 중요한 현안임을 인지하고, 관련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 중인 총 5개의 국립청소년시설은 각자의 특화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참여 분야에 특화된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면 청소년 분야 전반에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의 수준 높은 정치참여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4. 청소년 참여 중심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치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개인 단위로 분석해서 분류하면 대략 3개의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해 아직 고민이나 별 생각이 없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여력이 되는 선에서 노력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청소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낮은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라 칭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성화 정도는 높은 단계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특별회의나 지금의 청소년의회 의장으로 있으며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청소년들을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선 지금의 청소년 활동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시키는 데는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2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은 대략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정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우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청소년 참여기구를 다양한 영역으로 계속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청소년 활동이 더 주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소년 참여기구는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해당 정책이 반영되는 과정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청소년 활동은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긴 쉽지만,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까지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 노력을 통해 정책이 반영되는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행동력을 두루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무작정 권한과 의무만 확대하다가는 소화하지 못할 수 있기에, 교육 및 동기부여 역할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는 기존에 하던 교육을 증설 및 다각화하고, 교육청 위원회나 청소년기관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관련 직책에 보하여 실제로 경험하며 배울 기회까지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학습의 과정 이후에 더 많은 역할에 대한 청소년들의 갈증이 생길 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며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참여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 참여기구가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높은 민주시민 의식과 정치참여 의욕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MEMO

MEMO

자료집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인 쇄 2021년 11월 25일

발 행 2021년 11월 2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